

# 01

## 어항을 새롭게 재조명 할 수 있는 큰 역할



김형인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

1969년 어항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도의 틀 안에서 꾸준히 어항 개발을 추진해 왔다.

1993년 24년만에 「어항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1994년 농어촌특별세가 신설되어 어항개발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2005년 「어촌·어항법」이 제정되면서 어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었다.

어항개발을 통하여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어선의 안전수용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

최근에는 어항을 일반국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어항개발 50년>이 발간되었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해양 수산 관련 정부조직의 변화로 이전과 통합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귀중한 자료들을 찾아 수록하여 사료적 가치를 돋보이게 한 관계자들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우리나라 어항개발이 건설 산업분야, 더 나아가 국토개발 차원에서 큰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대내·외적으로 소외되고 외면 받아 왔으나, 금번 어항개발과 그 역사를 담은 50년사의 간행은 대한민국 해양시대, 수산업 발전의 기반시설로서 어항을 새롭게 재조명 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어항개발 전반에 대한 관련 법규·조직·정책·기술 발전 등 다양하게 분석·평가된 통사와 서두에 전개된 화보는 정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표현되었다.

다만, 교통과 통신·생활환경이 열악했던 60년대, 특히 도서·벽지에서 어항 건설에 매진했던 현장의 실상을 읽을 수 있는 자료들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이번에 간행된 <어항개발 50년>은 그간 어항 개발에 종사한 여러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자료가 될 것이며 동시에 어항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했던 사회 각계 미지의 분들에게도 어항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과 자료로서 널리 활용 되었으면 한다.

## 02

### 어항개발의 발자취와 미래를 살피는 소중한 정보



안익성  
항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항만 일에 몸담고 있고 그간 어항개발계획과 설계를 일부분이나마 수행해온 엔지니어로서, 이번 〈어항개발 50년〉 발간을 함께 기뻐하며, 열정적인 에너지를 쏟아 부어 이처럼 매우 훌륭한 ‘어항역사’를 기록해낸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다. 이는 금회 발간한 〈어항개발 50년〉이 그간 몇 번 시도된 적이 있는 단편적인 접근과 기술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어항 태동에서부터 다녔던 격동의 반세기 어항역사를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약 정리하여 기술함으로써, 미래항만의 꿈을 설계하고자 하는 각계의 어항 관련 종사자와 학생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우리나라 어항개발의 발자취와 현주소 미래전망과 관련된 아주 소중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에 발간된 〈어항개발 50년〉은 전국 109개 국가어항을 해역별로 정리하고 대상 항별 유래와 지리환경, 개발연혁과 특징, 미래를 향한 개발방향과 추세를 함축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부상하는 어항 레저·관광 추세에 따라 ‘찾아가는 어항’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매우 유용한 팁(Tip)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에 수록된 어항개발과 관련된 어항지정, 정부조직, 태풍 피해현황, 개발투자, 연표 역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후인으로 하여금 어항개발 역사의 대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어항개발은 선사기록에서 출발하여 일제치하의 수탈을 위한 아픈 개발역사이자, 경제개발계획 등 산업발전 추세와 함께한 역사이고, 저동항 가거도항 개발에서 보듯이 설계와 시공 기술의 축적을 통해 대자연의 힘을 극복한 불굴의 의지 역사라 할 수 있다.

〈어항개발 50년〉 발간에 일부 참여하면서 새롭게 느낀 바지만, 농경시대와 산업사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한국 어항개발의 산 역사를 써온 어항분야에 매진한 선배 재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싶다. 산업구조 변천 추세에 따라 해양·수산 레저·관광 역사문화 지역사회를 융합 수용하는 새로운 어항개발 개념 도입과 지구온난화에 따라 점증하는 태풍피해에 대비한 어항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까지의 자랑스러운 〈어항개발 50년〉을 넘어, 더욱 활력 넘치며 풍요롭고 안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어항을 기대한다.

# 03

## 사진자료 적극 발굴 노력으로 〈어항개발 50년〉 품격높여...



이 상 기  
한국어촌어항협회  
어항본부장

이번에 발간된 〈어항개발 50년〉은 어항에 대한 역사를 종합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사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의 어항개발 발자취 등 평소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아주 귀한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하였으며 건국이후의 어항개발 관련 법규, 조직, 정책의 변천, 기술발전 사항이 수록되었다. 특히 1970년대 ‘연근해어업진흥계획’에 따라 주요어장 인근에 긴급대피항으로 집중 개발된 저동항과 가거도항의 개발과정에서 어려움과 극복과정은 우리나라 어항건설의 기술 발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형 다기능어항 개발과 국민의 생활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최근의 어항 모습을 볼 때에는 어항개발에 참여한 한사람으로 뿌듯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해준다.

109개 국가어항에 대하여 동·서·남해 해역별로 어항의 유래, 개발현황 및 특징, 어항 개발 전과 현재를 비교한 〈어항개발 50년〉은 개별어항의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어항의 지정·해제 및 완공현황,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어항 행정조직의 변천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 사료적 가치를 더 해주고 있다. 어항개발에 관한 파란만장한 역사적 자료는 그 동안 정부의 어항 담당조직이 수산청에서 해양수산부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다시 해양수산부로 자주 바뀌면서 예전에 작성된 많은 어항개발 관련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료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어항개발 50년〉 편찬 지면이 한정되어 109개항에 대한 자료를 좀 더 깊이 있고 폭 넓게 기술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느껴진다.

이번 〈어항개발 50년〉 편찬과정에서 많은 자문을 해주신 어항분야 원로 선배님들의 생생한 증언과 자료 제공은 〈어항개발 50년〉 발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어항 개발이전 광경, 일제강점기 공사광경, 어항내 파시광경 등 어항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진자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문화원, 수협, 그리고 지역주민과 어항 주변 식당까지 수소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어항개발 50년〉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 자료수집에 적극 협조해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관계자 여러분과 한국어촌어항협회 직원들에 대하여 고마움을 전한다.

# 04

## 어항정책 수립에 좋은 교훈과 지침서가 될 듯



배길중  
해양수산부 사무관

“어항(漁港)”이란 두글자가 참으로 친근하게 다가온다. 흔히들 역사는 진보한다고 하는데 어항 개발 분야도 옛날부터 현재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었다.

그러나 수산청이 발족한지 반세기가 되는데도 중앙정부차원의 어항개발과 관련한 사료집이 없어 어항역사를 알고자하는 국민들과 관계자들에게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는데 늦게나마 〈어항개발 50년〉을 발간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마음이 후련하다.

어항개발의 역사를 돌이켜 보건데, 어항은 그 동안 어려운 시대여건 속에서도 발전의 동력을 달고 진보를 거듭해 왔다, 어민의 공간에서 국민의 공간으로,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돌로 쌓던 방파제에서 대형케이스 방파제로, 어선위주 단순한 시설에서 친수와 환경을 고려한 아름다운 시설 등, 전반적으로 수산·유통·관광·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기능어항으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발전이 있기 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은 어항 관계자들의 땀의 결실일 것이다.

〈어항개발 50년〉을 기획하면서 무엇을 담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물론 전문작가도 있지만 사실 (기록) 위주의 조사 및 편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항분야에 종사한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항개발 50년〉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무엇보다도 오래된 기록물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히 오래된 어항 착공전 사진 등을 구하기 위해 일선 수협 등에 일일이 독려해서 자료를 확보한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상기 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항개발 50년〉을 편집하면서 어항개발의 과거를 볼 수 있었다.

시대별 어항의 변천과정에서 아픈 기억들, 참 잘한 일들, 변해야 할 일들, 계승해야 할 일들 등 현재 해양수산부 근무하고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어항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좋은 교훈이 되고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제 〈어항개발 50년〉을 통해 역사를 알았으니 과거와 현재를 뛰어 넘어 미래의 어항발전을 위해 지금부터 조금씩 아름다운 어항의 거탑을 쌓아가자.